

제101회 김 중 범

# 경경대 3개학과 본관 농성

## 학교측의 무성의 지적하며 '경영대분리' 요구

서울캠퍼스 경경대 경영·무역·회계학과는 지난 16일 경영대분리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부총장실, 기획관리실장실 등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30분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천극장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정거농성을 결의한 3개학과는 "학교측이 지난 88년 합의한 경영대분리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년에도 꼭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교부의 단체분리 시안보고에 대한 시일이 촉박해 이번엔 해결되지 않으면 해를 넘길 수밖에 없어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영일 부총장은 "경영대 분리의 필요성을 모르는

서울측 학부제(경영대 경영학과 분리 등)가 제안되었으나 각각의 입장차와 조건만 강조했다.

서울측 3개학과는 "수원에 있는 중복학과들은 학교측의 부당한 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단체분리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수원측 3개학과는 "서울캠퍼스만의 독자적인 분리는 상대적으로 수원캠퍼스의 질적저하를 가져올 것이므로 단체분리와 중복학과분리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가정대 '아나바시장' 열려

가정대 학생회는 오는 23, 24일 이틀동안 노천극장 주변에서 '아나바시', '나뉘고', '마귀잡기' 등 3대 아나바시장을 열었다.

"아나바시장은 지난 88년 제1대 가정대 학생회에서 사회의 과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번행사의 수익금은 전교조기금으로 사용된다."

◇...편지교환  
고향골에 난데없는 좌판 선물의 집이 생겼다는데, 알고보니 여성학교에서 도서마련을 위해 좌판을 벌인것 취지는 좋으나 할지라도 그 품목이 '시커의 꽃'인 목걸이에서 편지까지, 오히려 그 목걸이 무색할 지경.

노트, 우리 여학생에게 팔 물건이 이것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소.

◇...대자보에 발(?)  
대'중에게 널리 알려려고 대자보를 붙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네.

뺨뺨뺨네,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안보인다고 하시렵니까?

◇...과질유전병 '팬주스태디움(?)'  
5공과 6공이 형제라는 것은 과질유전병인 팬주스태디움(?)에 걸린 것에서도 명약관화한 듯.

5-18광주항쟁기념일만 되면 눈이 충혈되어 로마군단을 동원해 감경진압으로 일관해온 바.

10년이 지난번 강산도 변한다건만 아직도 죄를 뉘

◇... "생태 좋으면 구속이래"  
"위 학생은 대학신문 좌정기자경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함."

최근 문교부에서는 대학신문 편집자를 도입하여 '정론지필' 하는 대학신문기자에게 자각을 물리시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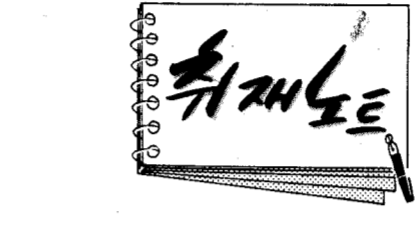
대학신문기자들이 나랏님의 정수를 뺨뺨으로 채찍하는 것이 과질유전병이든 백성을 과질유전병으로 삼은 공덕(空德)을 단지 '정론지필' 할 뿐이 아니겠소?

◇...대동단결로 휴강합니다

고광골·사관골 뺨뺨들이 대중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열기가 높고다 하여 노트주 기쁜마음에 일어난다.

많은 뺨뺨들이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곳은 대동단결의 장이 아니라 행사기간중의 휴강이다.

그렇게 휴강하시라는 뺨뺨네들! 이에 인생도 휴강을 하심이 어쩔지.



# 학원소식

김말에 교수 자유중국어  
▲장환일(의대·의학)교수=지난 5월 9일부터 22일까지, 제14회 미국 정신의학회 참석. ▲최용복(의대·의학)교수=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제93차 소아과학회 초청특별강연 및 대학강연 참석. ▲김말에(무용)교수=오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자유중국어국제무용 페스티벌에 참석. ▲김한상(의대·서반어)교수=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총장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멕시코의 국제 교류 및 밝은사회운동세미나 여행에 참여. ▲김정호(의대·89) 스카이호(조경·85) 스카이호(국문·86) 스카이호(영교·85)

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  
【서울캠퍼스】▲치대대교전기타반(DENTASTRINGS) 정기 연주회=오는 3시, 크라운관 ▲국제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오는 23일 1시, 도서관 세미나실 ▲치과대 에야르시(통기타모임) 정기 연주회=오는 25일 11시, 크라운관 ▲의대 연극부 '베레로' 제28회 정기공연=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1시, 도서관 시청각실

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  
【서울캠퍼스】▲치대대교전기타반(DENTASTRINGS) 정기 연주회=오는 3시, 크라운관 ▲국제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오는 23일 1시, 도서관 세미나실 ▲치과대 에야르시(통기타모임) 정기 연주회=오는 25일 11시, 크라운관 ▲의대 연극부 '베레로' 제28회 정기공연=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1시, 도서관 시청각실

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  
【서울캠퍼스】▲치대대교전기타반(DENTASTRINGS) 정기 연주회=오는 3시, 크라운관 ▲국제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오는 23일 1시, 도서관 세미나실 ▲치과대 에야르시(통기타모임) 정기 연주회=오는 25일 11시, 크라운관 ▲의대 연극부 '베레로' 제28회 정기공연=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1시, 도서관 시청각실

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  
【서울캠퍼스】▲치대대교전기타반(DENTASTRINGS) 정기 연주회=오는 3시, 크라운관 ▲국제기독교학생회 학술세미나=오는 23일 1시, 도서관 세미나실 ▲치과대 에야르시(통기타모임) 정기 연주회=오는 25일 11시, 크라운관 ▲의대 연극부 '베레로' 제28회 정기공연=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1시, 도서관 시청각실

## 체과대 복싱부 종합우승 제1회 회장기 복싱대회서

체육과대학 복싱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회장기 복싱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본교를 비롯하여 9개학과가 참가한 이번대회의 개인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길(체육·2):페더급1위, ▲김진영(체육·1):라이트급1위, ▲류남하(체육·2):라이트헤비급1위, ▲박상주(체육·1):웰터급2위, ▲이대환(체육·1):라이트웰터급2위

한편 체육과대학 핸드볼팀은 지난 17일 체육과대학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미국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20대20로 비겼다.

## ‘학생자가용등교 자제’ 캠페인 전개

서울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이하 인복지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학생자가용등교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체육과대학 핸드볼팀은 지난 17일 체육과대학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미국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20대20로 비겼다.

## 선물회 운영태군 구속 14일 '대불연' 회의도중 자취방서

수원캠퍼스 불교동아리 '선물회'의 운영태(전자·88)군의 2명이 지난 14일 운영태군 자취방에서 연행되었다.

태군과 함께 이날 연행된 이들중 서광석(환경·88), 차지영(요업공·86)군은 지난 16일 출려했으며, 운영태군은 구속되어 현재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민중불교와 선진적 종교동아리연합인 '대학생불교연합회 경기지구 운영위원회' 회의도중 연행된 것이며 운영태군은 당시 경기지구장을 맡고 있었다.

## 사학과 '고답특위' 공청회 17일, 북한답사 진행상황 등 보고

사학과 제2기 교육문화화권 유적답사 및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고답특위)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본관 201강의실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전전개방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사학과 북한 답사위원회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내부조직화와 일련의 연대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답사 진행상황 및 의의성을 공유하고 일정,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진용(사회·4)사학과 학생회장은 "순수한 열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단합된 힘으로 북한답사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 “생색내기 정책이 기술공황 초래해”

몇몇 전 내한한 벨연구소 소장인 이만 M.로스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한국 기업은 발전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의지와 실천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사석에서 "한국의 기술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지만 너무 대외 의존적"이라고 지적하기를 잊지 않았다.

벨연구소는 美 전진전화주식회사(AT&T)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최초의 전화를 발명한 것을 비롯 광섬유, 인공지능, 디지털 컴퓨터를 개발 세계 통신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곳.

이것이 주는 발판을 잃고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너무 구호만 요란한 감을 지을 수 없다. 말로만 하는 기술개발이 슬관화 되버린 것이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적을 뚫고 있으며 현대통영의 이만 박사에게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의 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초에는 법무부적으로 산업계의 취약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종합 대책안'까지 발표되었다.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선진국들의 기술보조주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자국 기술없는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자립을 하겠다는 최근 움직임은 '베끼기 기술'과 기술 도입으로 70~80년대의 기술구멍을 메꾸어 왔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은 기반근성을 미흡해 여전히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만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인력양성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자기 유 청기에 급급한 것이다.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업발전 기금이 특정연구 개발 사업등 대표적인 지원금 조차 규모가 극히 소액인데다 제도마저 까다로워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예산-인력배정이 맨 구석으로 밀려지고 있는 것은 적잖은 국외 기술개발 풍토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산업계들도 겉으로는 기술개발을 외치면서도 뒷전에서는 외제품 수입으로 판매를 올리는 데 열을 내고 있으며 이미 한물간 기술인지도 모르고 너도 나도 비싼 로열티를 주면서 도입하기에 바쁘다.

또한 대학도 정예교육보다는 정원늘리기 데 더 열을 쏟고 있는 이같은 오늘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기술입국'이 확산되지 않은 한 자칫 기술공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 '90 2학기 교비 해외연구 파견교원 선발

본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 규정에 의거 본교 교원의 해외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학년도 2학기 교비 해외 연구파견 교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단, 국내외 학술지원금에 의해 장기(6개월이상) 해외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한 자는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함.
2. 선발인원: 3명
3. 파견기간: 1990년 9월 1일-1991년 2월 28일
4. 제출서류: 국제교류위원회 사무국
5. 신청접수기간: 1990년 5월 14일-6월 4일
6. 수혜자의 의무

가.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출국 30일전에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초청장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 수혜자는 귀국 후 2년간 의무봉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불이행시에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라.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1월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혜자는 \$3,600(왕복항공료 별도지급)의 연구비를 지급 예정임.

국제 교류 위원회 위원장

## 컴퓨터 특강 인원 모집

총학생회 인건 복지 위원회에서는 경제 학부의 전입과 방학중 발생하는 경제 수련 캠프의 사정화를 방지하고자 컴퓨터의 초보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경제 학부의 뜻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인원 : 500명 (선착순 접수)
2. 강습 시간 : 6.23-8.18 (방학 기간)
3. 프로그램
  - 1) MS-DOS
  - 2) WORD PROCESS
  - 3) DBASE III
  - 4) KEY BOARD 조작법
4. 강의 시간표(강의 시간 90분)
  - 1) 10:00-11:30
  - 2) 11:40-13:10
  - 3) 13:20-14:50
  - 4) 15:00-16:30
  - 5) 16:40-18:10
5. 사용 기종 : 고려 시스템 (XT-640KB, 2-FDD)
6. 편 성 표 : A반 : 원,수,금 B반 : 화,목,토
7. 수 강 료 : 30,000원 (교재별도)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5월 30일까지
9. 강의 장소 : 경희대 수원 캠퍼스
10. 문의 및 접수 : 인건 복지 위원회 (T. 2804)

\*\* 참고사항 \*\*

-본 특강은 신청자가 300명 이하일때는 설치비용 때문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음.

-강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 캠퍼스 예정)

-교포 및 식사 운영가능.

-컴퓨터 전입 강사 배정.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 인건복지 위원회

## '90전반기 예비군 교육훈련

수원캠퍼스 직장에비군 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가. 교육대상 및 일정

일차	구분	대상대학 및 부서	과 목
5.28(월) 08:40-17:00	교직원, 자연대, 체대, 의대		정신교육 .4시간 산악행군 .4시간
5.29(화) 08:40-17:00	공과대학 전원		.4시간 산악행군 .4시간
5.30(수) 08:40-17:00	사회대, 산대, 대학원생		.4시간

나. 장소: 수원캠퍼스1호관 시청각실 및 행군로

다. 집결방법: 개인집결

라. 교육훈련 제외자

- 1) 현역, 보충역 공허 당해년도(90년도)전역자
- 2) 지역에서 90년도 교육훈련 16시간 이수자(90년 도 복학생만 해당)
- 3) 소집면제자

마. 준비물: 필기구 및 산악행군 할수 있는 준비 물. 유의사항

- 1) 예비군 복장은 휴대하여 훈련장에서만 착용
- 2) 교육당일 08:40분까지 입장 완료(30분이상 지연 도착자는 불참처리)
- 3) 부정착용시 계급장, 부대마크, 공수(유적) 마크는 부착할 수 없으며 예비군 표식 (전투모, 전투복 착용주머니 상단) 만 부착
- 4) 중식지침
  - \* 기타상세한 것은 예비군 연대본부 (교. 2068/2069)로 문의 바람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직장에비군 연대장

## 실미 미국가정겨우 영어 연수

생활속에서 영어를 습득하고, 태양과 사막속에 건설된 현대 문명의 낙원인 St. George, Utah에서 우리 학생들과 동년배의 미국 청소년들과 함께 영리한 우정의 씨앗을 심는 미국 가정겨우 생활영어 연수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져 보기를 권합니다.

안 내

연수기간: 1990년 7월 22일-8월 19일 (29일간)

장 소: St. George, Utah, U.S.A.

비 용: \$2,835. (1,984,000원) 왕복비행료, 여행 및 숙박비 일체, 견학, 답사, 스포츠 및 자신들의 활동을 담은 VHS 비디오 포함.

연 락 처: 정현제 교수 연구실 (전화961-0417)

신청기간: 1990년 5월 30일

경희대학교 정현제

교 회 안 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 를 둔 분들은 본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생활이시게. 교회학교 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 일 아침: 1부 9시, 2부 11시  
주 일 저녁: 매주 일 오후 7시  
삼 일 저녁: 수요일 7시  
대 화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 5시

성 지 에 서 온 교 회